

폐사지 찾기·금정산 살리기 '분주'

신행연장

'항토사랑' 주영택씨

나를 둘러싼 것들로 인해 내가 규정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과 직결되기도 한다.

사학도였던 대학 시절부터 지난 해 2월 부산 동백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둘러싼 것들의 숨겨진 가치와 역사를 알기 위해 한걸음 걸이는 주영택(63·항토사랑)씨다.

지난해 2월 29일, 가마골 항토역사연구원을 개원하고 부산의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온 그의 일상은 자신을 알아가는 수행과 맞닿아 있다. 이제 주영택씨는 자신이 알아낸 부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는 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11월25일에도 학교 선생님들 및 부모의 부탁으로 한창 발굴중인 만덕사지를 둘러보고 석불사에 올라 그곳 마애불 29체의 면면을 설명했다. 금정산성내 마애불 중에는 주거사에 의해 발견되어 제 가치를 찾게 된 경우도 많고 보니 그 설명은 단순치 않다. 원석을 가공하여 숨겨진 보석의 가치를 드러내듯 주거사의 한 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그와 함께 하는 금정산 산행이나

범어사 순례는 직접 발로 뛰고 시간을 들여 느끼고 본 것을 고스란히 전해 들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200회 이상 금정산을 오르내리면서 범어사의 범위를 나타냈던 범어기(梵魚記)를 발견했고, 폐사지인 해월사지의 위치를 밝혀냈다.

게다가 금정산내에 흩어져 있던 55체의 마애불을 정리했으니 그는 금정산과 범어사에 대한 살아 있는 보물고인 셈이다. 숨겨진 역사이야

가마골에 연구원 문열어

수행하며 현장답사

부산지역 유물 '살살이'

가, 불교적 가르침을 꼼꼼히 전해주는 그의 설명 덕에 전문 답사팀부터 일반인, 대학생, 교사, 중·고등학생들이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범어사와 금정산을 다녀간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뜬다.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최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해서 우리



◇주영택(가운데)씨가 오른쪽 네번째가 동래항토답사회원들에게 가덕도의 역사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의 미래인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죠."

요즘 들어 더욱 바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는 만큼 세상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화합임을 알기에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답사팀 안내, 항토 사료집 발간 등을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 답사 등으로 하루해가 찢나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미 부산의 지명, 문화재, 명소 등을 정리한 <가마골 역사 이야기>를 펴낸 그는 앞으로 해운대의 비석, 해운대 지명과 관련된 최치원 선생의 여정, 금정산과 범어사 등 지역을 알리는 소책자 발간을 준비 중이다. 또한 가마골 항토연구회도 연구회원과 일반회원 10명 정도를 두어 활성화할 계획이다.

설명을 이어가던 그가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 "범어 3기와 범어 8경

이 뭔지 알아요?"

범어사에서 기이한 것 세 가지와 여덟 가지 빼어난 풍경을 모르면 범어사에 서린 불교적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조용히 설명을 잇는다.

"범어사 여산교에서 바로 보는 노송, 청련암 법당에서 내리는 밤비소리, 내원암에서 듣는 은은한 종소리, 계명암에서 바라보는 10월 상달, 대성암 구름장 밑을 흐르는 숨겨진 물소리..." 계속되는 설명이 흐르는 물처럼 고요하고 멋스럽다.

"제대로 알고 느끼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름길"이라는 항토사랑 주영택씨는 자신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만 남겨 놓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나'라는 감옥을 벗어나려면

부처님께서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신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권력, 명예, 재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사문출유(四門出遊) 과정에서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셨다. 설사 부귀영화가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버려야 할 것임을 아시고 그 까닭을 규명하고자 하셨다.

살아는 즐거움도 행복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이다. 세상만사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권력, 명예, 재물 그리고 목숨까지도 결국은 버려야 한다. 자신이 아무

리 싫어하고 발버둥쳐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것이 향상을 바라며 쉬지 않고 쫓아간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쓴다. 때로는 그 일에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그래서 삶은 도로(徒勞)가 된다. 고(苦)가 된다.

모든 것을 결국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애써 집착하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권력에 붙들려 앓아내고 명예, 재물에 붙잡힌 마음이 한결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중생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기 보다는 역으로 부처님을 신비하고 전지전능

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 도움을 주시라 빌고 빈다.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의 짓을 하고 있으니 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모순된 행위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지향이다. 누구나 고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기에 가르침은 집착을 부정한다. 집착과 갈애의 근본이 되는 나,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부정한다. 관념, 분별, 사랑, 집착, 갈애의 죽음만이 고의 근치(根治) 처방이다. 그것만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자임을 자처하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일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초발심으로 산다는 것 어려울수록 마음내야"

사람이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처음 품은 마음을 시종일관 지켜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요즘이고 보면, 초발심(初發心)을 유지한다는 것이 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고 신상에 잘 못된 일이 생기는 것은 모두 처음 품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때그때의 개인적인 이익과 즐거움에 집착하여 변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자주 초발심의 긴요함을 강조하셨고, 만 가지 일을 오직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서 타개해 나가는 타성일원(打成一片)의 정신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입고서도 매사에 어둡기만 한 수행자로 살아온 내게 초발심과 타성

이익과 쾌락 좇으면

밝고 깨끗한 마음 소멸

일련의 정신을 깨우쳐 주신 분은 바로 언제나 거울 같으신 사스님이십니다.

은사 경산(慶山) 큰스님께서 1917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나서서 17세 되던 해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하셨고, 금강산 마하연 선원과 상원사, 범어사, 정혜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두루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56년 부터는 조계종 정화불사에 전력하셨고, 총무원장을 거쳐 동국대 이사장 소임을 십 년 동안 맡기도 하셨던 근대 조계종의 큰 일꾼이셨습니다.

총무원장 소임을 끝내신 스님께서 어느 해 겨울 적조암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적조암 살림을 맡은 암주(庵主)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재래식 화장실이 가득 차서 모 두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치우려고 나서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스님께서 그 특유의 함경도 사투리로 "오늘은 변소를 치자 야"라고 말씀하시



자용스님

수국사 주지

더니 손수 팔뚝을 걷고 나섰습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을 치우고는 화장실 천을 스님이 앞에서 메고 뒤에서 제가 들고 가면서 들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냐.' '스님, 제가 그래도 암주인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스님께서 웃으면서 '왜, 이게 안 좋냐?' 분이 보살은 초발심으로 성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젊은 암주에 불과했던 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은사스님께 "암주인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합니까?" 불평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은사스님께서 평생 자신이 머물, 마땅한 절 한 곳 두지 않으시는 청량과 법력으로 일제의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절들을 수리하는 일에 전력하셨던 분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안 계신 지금, 나는 스님의 수행과 초발심을 거울로 삼고 본받아 항상 처음 볼가에 입문한 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과 스승의 은혜를 갖고자 진력하고자 항상 다짐합니다.

수국사의 중창불사와 유치원 설립 일을 하면서도 불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은사스님의 거울 같은 마음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불자들이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 더욱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변 이슬람의 극단 세력에 의해 바미안의 대불이 파괴당하는 것과 같은 수모를 또 언제 어디서 또 겪게 될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29일부터 동안기가 시작됩니다. 꼭 절에 들어가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간 만큼은 눈을 크게 뜨고 초발심으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신행 캘린더

11월 5일(수)

■ '이슬람과의 대화' 강좌=불교야가 데미는 오후 6시30분 법원사 불일문 화회관 2층에서 '이슬람과의 대화'를 주제로 문명탐구 시민강좌를 연다. (017220-1281)

■ 법우스님 전통춤 공연=법우스님은 7시 대전화성회관에서 결식아동 돕기 전통춤 발표회를 갖는다.(042)271-3395

12월 7일(금)

■ 제3차 천일결사 회향식=정도회는 오후 2시 문경 정도회관에서 정도 행사 만일 결사 중 제3차 천일 결사 회향식을 갖는다. 출발은 9시 서초동 정도회관.(02)587-8993

12월 8일(토)

■ 제5회 종교인론심포지엄=종교인론인협회는 9일까지 양평 남한강수련원에서 '문명충돌 위기에 따른 종교인론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02)722-4162

■ 우리는선우 무용치료 강좌=우리는선우는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조현숙 심상상담사를 초청 '무용치료'를 주제로 특별 강좌를 마련한다.(02)2278-8672

■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와 상담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은 경기도 화성 용유사에서 9일까지 제 2차 '신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세미나를 개최한다.(02)737-8803

■ 옛돌불교문화회 성지순례=옛돌불교문화회는 9일까지 장흥 보림사와 천관사, 화순 운주사 등을 순례한다.(02)2275-4333

12월 9일(일)

■ 우리절 생태관찰=불교환경연대는 11시 30분 조계사 경내에서 조계사 어린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절 생태관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720-1657

■ 공불연 합동수계법회=공무원불자연합회는 오전 9시 구미 아도모레원에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019)290-6141

12월 11일(목)

■ 대체의학 강좌=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13일까지 한생명 남원환경농업교육장에서 대체의학 강좌를 연다.(063)636-3776

12월 12일(수)

■ 풍경소리 악보출판 기념회=풍경소리.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를림에서 악보출판 기념회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02)717-6985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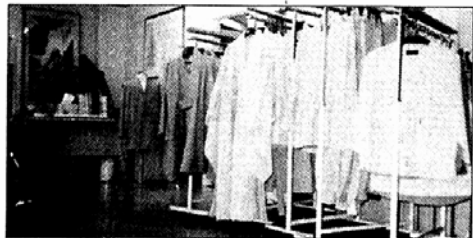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추동복 : 촉감이 매우 좋고 땀이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누비 : 고급단으로 촉감이 부드럽으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장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가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봉사 보시하면 +불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팔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비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동방	남·여	120,000
누비	상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장삼	보온복	남·여	70,000
	장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가방	중	28,000
		소	23,000
미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기원 섬유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ENGAGED BUDDHISM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11·12월호 일방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여불교

'맑은 종교 만들기'

값 7,000원

1년 정기구독 35,000원

- 교계 개혁과 몽쳤다!

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 락낫한스님

- 특별기고** 종교와 반부패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 특집 II** 주5일 근무제와 종교계 - 레저문화와의 충돌 불가피 - 젊은 층 끌어들이 프로그램 개발 주력해야
- 만남**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 견두칼럼** 주제의 부재와 제도의 문제 - 불교계 성명서를 통해서 본 것
- 생활속의 명상** 자투리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라
- 교계초점** 달라이라마 2001 방한 왜 부산됐나
- 거사열전** 60-70년대 대가불교의 거목 덕산 이항상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역할은 커녕 싸우지나 말라,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는 비아냥도 들려옵니다. 훌륭한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야 서운하시겠지만 종교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감지못한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돈(money)에 있습니다. 심치척 얹어 붙여졌던 불교계의 난무극, 탐암목사직 세습 갈등 등의 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우상인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money)의 위력 앞에서는 자신들의 절대적 신념체계인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도 한낱 후지조각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때 불교·개신교·천주교 NGO들이 뿔뿔히 나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종교바로세우기의 첫 번째 목표는 '교단제정의 투명성 확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참여불교' 11·12월호에서 만나십시오.

- 특집 I -이 시대 한국종교가 실천해야 할 경제윤리 종교와 자본주의: 이태윤목사적 동조와 종교의 산업화 한국교회의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청빈: 역사적 경험과 과제 종교NGO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맑은 종교를 위한 경제윤리헌장 종교NGO네트워크 사업계획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주소 110-340 서울기 동로구 직지동 30-6 성원리 305호

전화 02)745-7799 팩스 02)744-3424, buddha21@yolgate.net